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페스 앙상블-에리트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 : 기쁨인가? ②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허공에 대고 당신의 이야기를 소리치는 것이다. 자델르 코르도바

”

(지난호에 이어)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연주 자체를 즐겨야 한다. 연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탄탄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 청중의 관점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음악가의 준비동작이 작품의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준비한 작품의 결과가 허용됨과 상관없이 음악가는 청중 앞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로 연주해야 한다. 또한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해 공연에 대한 불안함을 잠재우고 감정적으로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동전의 앞과 뒤처럼 중요한 면들

연주자는 신랄한 비평과 지속되는 만족감 사이를 가느다란 실로 연결한다. 스스로 연주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은 실력 향상과 진보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거세져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연주와 음악가로서의 성장을 방해하고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끔 한다.

이 두 양극 사이에서 제대로 균형을 잡는 것은 그만큼 세심한 작업이다. 연주 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요소를 (언제나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떠올리면 건강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양극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매 순간 다른 상황을 해결해내는 방법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외부 변수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홀의 음향, 악기의 조건, 그리고 조력자들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조건을 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의 기본과 집중력이 좋은 상태로 유지된 채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과감히 버려보는 것이다.

어쨌든, 이상적인 조건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고, 보통은 마음대로 어찌해볼 수 없는 경우이다.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좋은 홀에서 최상의 준비상태로 연주를 기대하는 것

이야말로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비범한 음악적 상태는 난감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가끔 음향이 잘 울리지 않는 문제나, 길거리의 소음이 잘 들리는 장소나, 특별한 분위기를 가져 청중이 '무지막지한 상태'로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하는 경우, 연주자는 조금 더 특별한 음악적 강렬함으로 연주해야 하는 것이다.

연주를 마치고

연주자가 연주회를 통해 얻은 즐거움은 청중과 동일한 필요가 없으며, 이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연주자가 얻은 기쁨과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내악이나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하는 경우 모든 단원들이 연주의 성공에 대해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스트라와 여러 번의 연주로 투어를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연주자들은 어떤 공연이 최상이었는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그 무대 위에서 본인의 기분과 만족도, 그리고 개인적인 연주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주 뒤에 무한한 만족감을 가지는 것과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줄타기 곡에서 같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모두가 환상적인 공연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몇몇 위대한 공연 연주자는 깊게 실망하기도 한다.

마치며

연주자가 연주하는 매 순간마다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대신, 즐거운 연주가 꽃필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준비한다면 연주는 음악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풍성해질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기쁜 상황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그것은 가호이자 자연스러움과 같다. 연주하는 내내 기쁨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레퍼토리와 곡의 흐름, 청중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느끼며 즐기는 상황은 드물겠지만, 이 최소성 때문에 기쁨을 느낄 때 오히려 더 비범하고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